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미나 '컨테이너 해운 시장 상황과 전망'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뉴욕 연준 총재 “물가 올해 2.25%로 둔화될 것”
- Bloomberg: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해 4월 이래 최저치

#### [미국 금융]

- CNBC: 트럼프와 연준이 향후 금리 두고 갈등 빚을 수 있어.

####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의 성장 공약과 관세 정책은 상충할 수 있다

#### [오일]

- WSJ: 미 원유 비축량 증가

#### [주택]

- WSJ: 10월 미 주택 판매 증가... 모기지율 하락 덕분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지프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아... 딜러들 분노
- WSJ: 미 법무부 “구글은 크롬을 팔아야 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Fed's Williams Says 'Not Quite There Yet' on Cooling Prices** **뉴욕 연준 총재 “물가 올해 2.25%로 둔화될 것”**

-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s는 “경조한 경제 상황에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가 연준 목표치 2%로 내려 가려면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 2% 방향으로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준 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 가까이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소비지출지수로 산정한 인플레이가 올해 2.25%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는 미 성장률이 2.5%를 기록하고, 노동 시장은 추가로 좀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ecline to Lowest Level Since April**

##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해 4월 이래 최저치

- 지난주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일자리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11월 16일 끝나는 주의 청구 건수는 6천건 줄어든 21만3천건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들 전망치는 22만건이었다.
- 그러나 계속 실업 수당을 받는 숫자를 가늠하는 전체 청구 건수는 1백91만 건으로 3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보잉사 파업이 발생한 워싱턴주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CNBC: Trump and Fed Chair Powell could be set on a collision course over interest rates**

**트럼프와 연준이 향후 금리 두고 갈등 빚을 수 있어.**

- 만약 인플레이가 다시 상승하면 연준과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 투자자들은 최근 며칠 연준의 행보에 기대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 RSM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oseph Brusuelas는 “모든 길은 백악관과 연준 간에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CNBC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WSJ: Trump's Growth and Trade Agendas Are at Odds. His Economic Team Will Point to the Winner.**

**트럼프의 성장 공약과 관세 정책은 상충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자는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감세와 규정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무역적자 감소와 일자리 회복을 위한 관세 인상 정책이다.
-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상충된다.
- 빠른 성장과 연방 적자 확대는 수입 증가와 달러 강세를 만들어 무역 적자를 늘리고 미 산업 활동의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
- 반면에 높은 관세는 소비자 지출과 기업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와 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어 결국 경제를 저하할 수 있다.

- 트럼프는 강한 성장 또는 무역 적자 축소 중 하나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다.
- 이와 관련 재무장관의 지명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명 후보자들 중에 세금 인하와 관세에 대해 각각 다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 [오일]

### WSJ: U.S. Crude Oil Stockpiles Increase Amid Higher Imports 미 원유 비축량 증가

- 미국 원유 비축량이 증가했다. 지난주 원유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지난주 원유 수입이 하루 120만 배럴 증가해 7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략 비축유를 제외하고 54만5천 배럴 증가해 11월 15일이 있는 주에 4억3천30만 배럴에 달했다. 같은 시기 5년 평균에 비하면 약 4% 낮은 수준이다. 전략 비축유는 140만 배럴 증가해 3억8천92만 배럴을 기록했다.
- 미국 정유소는 가동 용량의 90.2%가 가동됐다. 지난주 91.4%에서 감소한 수치다. 지난주 초 허리케인 라파엘 때문에 멕시코만 해상 원유 생산이 일부 중단되었다.

WSJ 기사

## [주택]

### WSJ: Home Sales Rose in October Following Decline in Mortgage Rates 10월 미 주택 판매 증가... 모기지율 하락 덕분

- 10월 주택 판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연방부동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는 10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달보다 3.4% 증가해 계절 조정치를 적용하면 연율 396만 채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것이다.
-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은 모기지율이 하락한 덕분이다.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9월 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Lawrence Yun은 판매 중인 주택 수도 증가하고 있어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최근 모기지율이 다시 상승해 지난주 6.78%에 달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First American Financial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Odeta Kushi는 모기지율이 6% 이하로 떨어져야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Business: Jeep prices have gone through the roof. Buyers are bailing and dealers are furious****지프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아... 딜러들 분노**

- 2021년 스텔란티스 설립 이후, 회사는 더 높은 가격과 마진을 가진 차량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프 판매는 36% 감소했다.
- 지프 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가 판매하는 거의 모든 모델이 연간 두 자릿수 비율의 판매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높은 가격 때문이다. Edmunds에 따르면 2023년 4분기까지 스텔란티스 차량의 평균 미국 판매 가격은 5만8천 달러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이에 스텔란티스 딜러 협회(Stellantis' dealer association)은 스텔란티스 CEO Carlos Tavares에게 “회사가 2023년 단기 이익에 집중한 결과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수천 명이 해고됐다. 재앙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스텔란티스는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생산하는 Toledo 공장에서 약 1천1백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미시간 주 Warren에 있는 트럭 공장에선 1천2백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미국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는 스텔란티스를 대상으로 파업을 고려하고 있다.

## CNNBusiness 기사

**WSJ: Google Should Be Forced to Sell Chrome Browser, Justice Department Says****미 법무부 “구글은 크롬을 팔아야 한다”**

- 수요일, 미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남용했으므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글은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검색 엔진에 우선 접속하는 것을 막았다. 해당 규칙을 위반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웹사이트 게시자가 자사의 데이터를 구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구글 글로벌 업무 책임자 Kent Walker은 “법무부의 제안은 너무 과도하다.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12월에 법원에 자체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미국의 인터넷 검색 50%는 구글 엔진을 이용하고, 20%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다. 검색 결과 옆에 나오는 광고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약 1,749억 달러를 벌었다. 알파벳 전체 매출 3,070억의 약 57%이다.

- 구글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해결책 결정을 위한 재판은 내년 4월에 시작된다. 재판 담당 판사는 8월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반독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재집권에 아시아, 강달러 문제 직면 우려  
자국 통화 약세로 자본 유출·인플레 고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뿐만 아니라 강(強)달러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무역전쟁이 촉발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 많은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강달러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20% 보편 관세를 비롯해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공약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